

# 삼성 SDI, '친환경경영' 선언...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확대"

2050 탄소중립 달성 전략 발표  
2개 테마, 8대 세부 과제 선정  
美 등 'Closed-loop' 확대 운영  
최운호 사장 "사회적 책임 실천"

삼성SDI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소재 기업으로서 기후 변화 및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세계적인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親(친)환경경영'을 선언했다. 앞서 삼성은 4대 그룹 중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인 'RE100'에 가입했다. 삼성은 전사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난 9월 친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SDI까지 친환경경영 전략에 시동을 걸게 되면 삼성의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삼성SDI는 '기후 변화 대응'과 '자원 순환'의 2개 테마 아래 8대 세부 과제들을 선정, 중점 추진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친환경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삼성SDI는 올 초 최운호 사장 취임 이후 '2030년 글로벌 탑티어(Top Tier) 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적차 기술경쟁력 ▲최고의 품질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과 함께 ESG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제



삼성SDI가 3일 '친환경경영'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최운호 삼성SDI 대표이사(가운데)가 천안사업장에서 열린 임직원 소통 간담회 '오픈토크'에서 친환경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SDI

시했다.

##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삼성SDI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헝가리와 덴진, 말레이시아 등 해외 사업장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녹색 요금제(Green Premium), 재생에너지공급계약(PPA,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 직거래),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삼성SDI는 최근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

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다. 영국의 비영리 기구인 'The Climate Group'과 'CDP(탄소공개프로젝트)'가 주관하며, 연간 100GWh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삼성SDI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LNG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에도 나선다. 삼성SDI의 온실가스 주요 배출 원인은 LNG이다. LNG는 배터리 공정 내 드라이룸 환경 조성을 위해 보일러 설비를 가동하거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소각 설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삼성SDI는 LNG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고, 드라이룸 내 제습기의 스팀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소각설비(대기방시설)를 LNG 미사용 흡착설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해 2050년까지 LNG 사용 원단위(매출 1억원 당 LNG사용량)를 크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SDI는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 확대에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EU에서는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배터리를 위한 'EU 배터리 규제(안)'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안)이 발효되면 단계적으로

탄소발자국 공개 의무화 및 배출량 등 급화를 실시한 뒤, 궁극적으로는 배출량까지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SDI는 배터리의 제조 전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발자국 인증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친환경 생태계 선도를 위한 '자원 순환' 극대화

삼성SDI는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면 폐배터리도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SDI는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코발트, 니켈, 리튬 등 배터리 핵심 원소재들을 직접 광산에서 채굴하지 않고도 배터리 리사이클링 확대를 통해 재활용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삼성SDI는 국내 리사이클링 파트너사와 협력해 천안, 울산 등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Scrap)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등 배터리의 핵심 원소재를 회수하고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체계(Closed-loop)를 지난 2019년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와 헝가리로 확대한 데 이어, 2025년까지 중국과 미국 등 당

사가 진출한 전 거점으로 Closed-loop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SDI는 배터리 재활용 전문업체들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전동공구, 각종 IT기기 등에서 리사이클링한 배터리 핵심 소재들을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삼성SDI는 지난 5월에 연구소 내 '리사이클링 연구 Lab'을 신설해 배터리 소재 회수율 향상 및 친환경 소재 회수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삼성SDI는 일반 폐기물은 분리배출하고, 연구 개발 및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은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를 통해 재활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2050년까지 사업장 용수 사용 원단위(매출액당 용수 사용량)를 2021년 대비 대폭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펌프 냉각수 공급 방법을 개선하고, 배터리 조립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정수나 빗물 등을 재이용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친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1월 CFO인 김중성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TF장으로 하는 '환경경영 TF'를 발족하고, 이후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2월에는 기획팀 내에 있던 'ESG 전략그룹'을 CFO 직속 조직인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으로 재편했다. 매 분기마다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진척사항을 점검하는 등 '친환경경영' 추진에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최운호 삼성SDI 사장은 "친환경경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삼성SDI가 2030년 글로벌 탑 티어 기업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업 경영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SDI 기흥 본사에 설치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삼성SDI

## 삼성전자, e식품관 연계 '멤버십 플랜' 선보

신선·스캔쿱 식품 등 원스톱 쇼핑  
3년간 최대 72만원 상당 혜택 제공

삼성전자가 식품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3일 '삼성전자 멤버십 플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플랜은 '삼성닷컴 e식품관'과 연계해 소비자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다채롭게 제공하는 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식품을 제휴사 카드로 구입하면 3년간 최대 72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개념 멀티 조리기기 '비스포크큐커' 구매자들을 위해 마련한 'My 큐커 플랜 멤버십'에서 가전, TV, 모바일 등 제품으로 가입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냉장고·오븐·에어컨·무선청소기·세탁기·건조기 등 비스포크 가전 ▲Neo QLED·더 세리프·더 프리스타일 등 최신 TV ▲갤럭시 Z 폴드4·Z 플립4 등 갤럭시 기



삼성전자는 e식품관과 연계한 멤버십 플랜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기를 구매하고, 제품 일련 번호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고객도 최근 6개월 내 구매했다면 동일하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월 6만5000원 이상 e식품관에서 구매 시 매월 2만원씩 36개월 동안 최대 72만원의 카드 값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65플랜'과 월 3만9000원 이상 구매 시 매월 1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3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9플

랜' 중 선택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가전 제품과 이업종간의 연결을 통해 보다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자 e식품관을 기획했다. 비스포크 냉장고·큐커와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신선식품부터 바코드만 찍으면 간편하게 조리되는 스캔쿱 식품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 LG전자, '코드제로 R9' 신제품 공개

올인원타워 접목... 먼지통 자동 관리

LG전자 로봇청소기도 올인원타워를 쓰게 됐다.

LG전자는 이번달 '코드제로 오브제 컬렉션 R9'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4일부터 열리는 제53회 한국전 자전에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제품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S에 적용돼 큰 인기를 얻고 있

는 올인원타워를 로봇청소기에도 도입했다. 코드제로 R9 전용 올인원타워는 로봇청소기의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우고 UVC(자외선) LED로 먼지봉투 속에 쌓인 먼지 표면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신개념 충전거치대다.

LG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R9이 청소를 끝내고 올인원타워로 복귀하면 고객이 별도로 먼지통을 분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준다. /김재용 기자

## "트래버스 구매고객에 400만원 쏙니다"

한국지엠 창립 20주년 페스타

한국지엠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올해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지엠 창립 20주년 기념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쉐보레는 트레

버스 구매 고객이 콤보프로그램 선택시(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 최대 4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선수율(차량 금액 대비 선수금의 비율)에 따라 최대 7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또는 2.4%의 낮은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